**성령의 권능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데이브 듀웰 목사님 저서중에서**

****

내가 아파트 1층에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남편은 의자에 앉아서 멍한 눈동자로 먼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악의에 찬 눈으로 나를 흘겨보았습니다.

" 우리의 이름은 "에카"이다.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리젼(군단) 이라고도 하지 , 하하~"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다루려고 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가령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거의 모든 사람은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한 후, 그대로 문 앞에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권능이 나의 위에 임했습니다.

나는 이 남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단지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놈들, 멍청한 악령들아.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네놈들을 패배시킨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멍청한놈들아."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 알고 있지.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나는 더욱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경책 뒷 부분을 읽어보았지만, 네놈들의 장래는 엄청 두려운 곳에 가게 되있어."

반응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악령들을 잠시 무시하고 그의 아내와 얘기하기 위해 그 방에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앉아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방에 반대편 내가 있는 곳에 걸어와서

나를 흘겨보았습니다.

그는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나는 이번은 그의 눈앞을 지나가서 그가 앉아있던 의자에

 앉아 오히려 그를 흘겨보았습니다.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용솟음쳐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권능의 성령이셨습니다.

나는 마치 초인, 헐크가 된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이 변신해가는듯 했습니다. 몸에서는 힘이 올라오고 가슴이 넓게 펴지며

움츠려져 있던 부분도 전혀 없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엄한 얼굴로 의자에서 일어나서 당당한 발걸음으로 그 남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뒷걸음질 쳐서 벽에 달라붙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귀를 잡고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령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세차게 그를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는 방 한가운데까지 튕겨

날아갔습니다.

그의 안경도 벗겨져 날아갔으며, 완전히 바닥에 뻗어버렸습니다.

그가 숨을 쉬는지 어떤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 몸집이 작은 그의 아내가

"데이브, 그가 죽은 것이 아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죽이지 않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그의 한쪽 눈이 열리며 그의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 여기 있었어? 당신을 상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잠시후, 예수님은 완전히 그를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실직했기 때문에 완전히 낙담해 있었다고 합니다.

와인을 몇 병씩 사서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아서 마시곤 했는데,

자기 자신이 가엾게 느껴져셔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마비된 것처럼 되어 그것이 발끝에서부터 머리쪽으로 퍼져갔다고 합니다.

마치 강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그 감각이 발에 왔을 때 ,

그는 발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허리, 가슴, 그리고 드디어는 전신에 퍼져갔던 것입니다.

오후만 되면 악령이 그에게 말을 계속 걸어왔다고 합니다.

나는 물어보았습니다.

"그놈들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데이브듀웰 목사를 죽이기 위해 자신들을 보냈다고 말했지요.

그때 나는 왜 권능의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고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령들과 몇 시간이나, 때로는 온종일 격투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목장의 일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이 늦어진다는 것은 수면시간을 빼앗기는 것으로 나는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어느날 특히 밤 늦게까지 그 격투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령들은 네가 참으로 믿고 있는지 어떤지 알고 있단다.

그러므로, 다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 하여라.

그리고, 네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면 그들은 복종하게 되지."

그 이후로는 , 오랜 시간에 걸쳐 영적 전쟁을 오래 끄는 일은 거의 없어 졌습니다.

Tags

회개 청종 믿음 의심 내주

권위 권세 권능능력 기적